위안과 진리인 이 시대 비천상

〈飛天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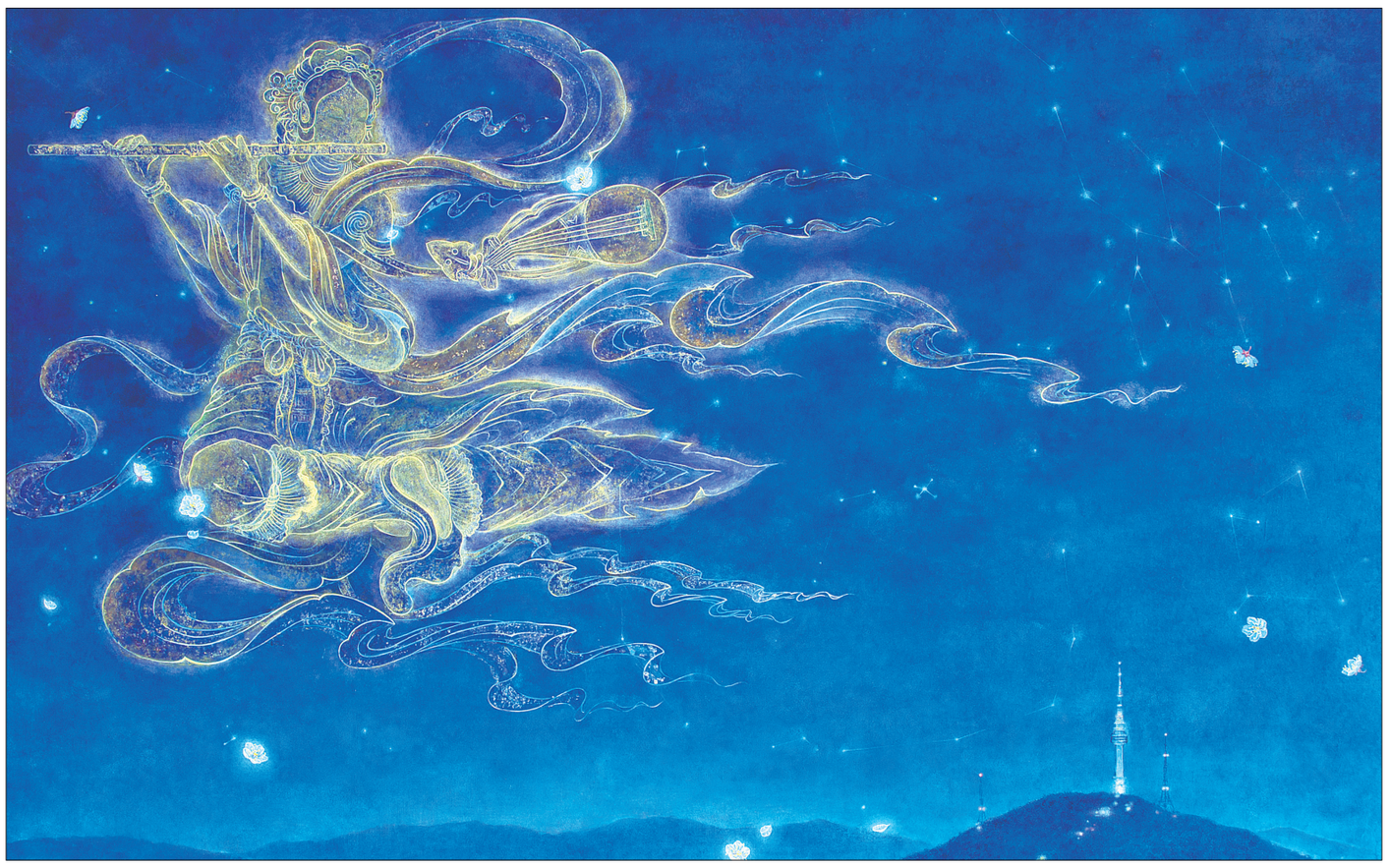
박은신 개인전 '보이지 않는 빛 … ' 展

서울 갤러리이즈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현대적 · 개성적 변용 비천상 등 30여 점

해인사 주악비천 등 실존 비천 모티브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박은신 作, 소리없는 노래를 들려줄께 162.2×115cm 장지에 분채, 금박, 금분 2020

전통불화 속의 '비천(飛天)'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시가 열린다. 현대적 불화의 한국화를 그려오고 있는 박은신 작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갤러리 이즈에서 개인전 '보이지 않는 빛, 들리지 않는 소리'를 개최한다.

박 작가는 네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 해인사 명부전의 주악비천, 안성 청룡사 대웅전의 주악비천, 경북 영덕 장육사 대웅전의 비천 등 실제 존재하는 사찰의 비천을 현대적이면서 개성 있게 변용한 작품을 비롯하여 수인과 연꽃 등 불교적인 도상을 소재로 한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명의 '보이지 않는 빛, 들리지 않는 소리'는 비천이 연주하는 음악과 아우라를 상징한다.

비천상은 주로 사찰의 범종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석등 · 부도 · 불단이나 단청의 별지화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천상에 머물며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꽃을 뿌려 부처님을 공양 · 찬탄하는 천인의 일종이다. 삼국시대 중국으로부터 불교와 함께 들어온 우리나라의 비천상은 고구려 고분에서부터 시작하여 불교미술에 수용되기 시작해 양식의 변천을 거치면서 한국적인 비천상으로 정착했다.

박 작가는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한지에 스며드는 먹빛의 질감과 겹겹이 쌓아올려 색을 내는 진채의 매력에 빠져 2013년부터 순지 위에 먹과 분채, 석채, 금분, 금박을 이용한 한국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동양철학과 현대과학, 그리고 불교철학과 현실이 만나는 접점을 그려보고 싶었던 박 작가는 지금까지 부처님이나 보살, 수인, 별자리 고목과 적벽 등의 지극히 초월적인 것을 상징하는 도상들과 떨어지는 매화꽃, 동백꽃,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 등 현실적이고 감각적이면서 시간을 상징하는 도상을 한 화면에 담아냄으로써 시간의 단위와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해왔다.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됐던 고려불화대전은 저에게 제 작품이 추구하는 바를 결정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둡지만 빛나고, 화려하지만 고요한 고려불화는 그 어떤 유명 미술관에서 본 명작보다도 더 큰 감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고요한 힘을 가진 그림을 경배의 대상만이 아니라 감상의 대상으로, 순수회화로서 표현해보고 싶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불화의 도상을 적극적으로 화면에 도입하였고, 부처님의 수인을 연작으로 계속 그려오게 되었습니다."

박 작가의 작품세계는 불교적인 도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작가 자신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동양철학이나 현대과학, 문학의 주제가 결국은 불교와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점점 더 불교철학에 심취하게 된 결과다. 이렇게 다소 관념적이고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주제를 작가는 가능하면 시적인 언어로 풀어내어 한 편의 시화를 보듯 서정적인 분위기로 표현하려했다. 소식(蘇軾)의 시중유화 화중유시(詩中有畵 畵中有詩)라는 말 이래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는 정서는 전통적인 동양회화사상의 특징이다. 박 작가는 현대 채색화에서도 이러한 정서를 살리고 싶어서 연꽃과 백로, 버드나무와 달, 매화가지 등 동양회화에서 이미 익숙한 소재를 클리셰로 사용하면서 불교적 도상의 엄숙하고 고전적인 소재들을 좀 더 친숙한 느낌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한 화면에 배치하고 있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눈과 귀를 혹사당하면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빛나고 귀한 그 무엇이 있다는 상상, 들리지 않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따뜻한 울림이 있다는 상상을 통해 감각으로 점철된 현실의 이면에 고요하고 숭고한 그 무엇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의 세계일 수도 있고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품는 표현되지 않은 공감이나 연민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 혹자에게는 자신이 추구했던 그러나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상적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초감각적인 세계를 그림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박 작가는 "광공해로 덮인 도시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구름너머 저 위에는 선연히 빛나는 수많은 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오듯이, 지상의 모든 이들의 지친 어깨 위에 꽃비를 뿌려주듯 빛을 내고 노래를 들려주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상하면 조금은 마음 한구석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 시대의 비천상을 표현해봅니다. 저에게 이 비천은 단지 위안이 아닌 진리이며, 돌아보는 마음이며, 때로는 너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림의 이면에 담고 싶었습니다"고 말한다. 박 작가는 앞으로도 비천상을 위주로 한 작품은 계속 그려나갈 계획이다.

박은신 작가는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서양화과 석사를 마쳤다. 2016년 '시공간을 소요하다1'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네 번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13년부터 국내외 단체전 및 프로젝트, 아트페어에 다수 참여했다.

제19회 유심작품상

윤효 · 문무학 · 이경자 · 한분순 수상



윤효 문무학 이경자 한분순

제19회 유심작품상 시 부문에 윤효 시인, 시조 부문에 문무학 시조시인, 소설 부문에 이경자 소설가, 특별상 부문에 한분순 시인(前 한국여성문학인회장)이 선정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5월 10일 제19회 유심작품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 부문에는 윤효 시인의 '차마객잔'이, 시조부문에는 문무학 시조시인의 '그전엔 알지 못했다'가, 소설 부문에는 이경자 소설자가의 단편 소설 '언니를 놓치다'가 각각 선정됐다. 특별상 부문에는 한분순 시인이 이름을 올렸다.

시 부문 수상자 윤효 시인에 대해 심사위원 오세영 시인은 "윤효 시인의 작품은 존재나 세계에 대해 항상 사색적이고 자기 성찰적"이라며 "그의 시에는 크든 작든 삶에 대한 깨우침이 있다. 한마디로 철학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조 부문 심사위원인 김영재 시조시인은 "문무학은 한국시조단뿐 아니라 한국문단에 소중한 시인으로, 한글 자모(子母)를 시로 쓴 유일한 시인"임을 강조했다.

소설부문을 심사한 구중서 문학평론가는 이경자 소설가에 대해서 "작가 이경자는 인간 존재의 기본권에서부터 문제를 추적하는 작품을 쓰고 있다. 아울러 총체적 세계관 범주에서 민족의 역사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소설을 쓴다"면서 "소설 〈언니를 놓치다〉는 이러한 현실의식을 충직한 수법으로 다룬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만해선양회 10일 선정 발표

8월 11일 만해축전서 시상식

이번 수상에 대해 윤효 시인은 "수상 통보를 받고 만해 한용운 스님을 떠올렸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환하게 밝힌 선지식의 전인적 풍모가 그리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으며, 문무학 시조시인은 "수상작 '그전엔 알지 못했다'가 만해 스님의 '알 수 없어요'를 많이 좇아가고 싶었나 보다. 수상의 기쁨을 숨기지 않으면서 여기선 그런 억지라도 마구 부리고 싶다"고 말했다. "강원도 양양 이북이 고향"이라고 밝힌 이경자 소설가는 수상소감으로 "인간 삶의 모순이 층층이 켜켜이 시공간에 뭉쳐있는 곳. 이곳에서 내 무의식이 모두 형성 됐다. 그러므로 소설가인 나는 뭉친 것을 풀어야 하는, 책무를 얻었다"고 밝혔다. 제19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은 오는 8월 11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 만해축전에서 진행되며,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는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안양 수리산 용 화 사

주지 태명 혜 우 신도회장 송창록

사바세계에 오신 용화미륵부처님께 깨우친 불법을 배우세요.

천도는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용화 미륵부처님만이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으로 영가가 전생에 살아서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걸 천도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도를 해야만이 죽은 영가가 다시 윤회의 길로 다시 이생에 올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다. 소중한 말이니 불자들은 뼈속 깊이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느냐? 사람이 죽어서 천년에 한번 몸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몸을 받겠느냐? 전부다 죽으면 다 귀신되고 소멸되는 것이다.

천도라는 것은 염불로 하는게 아니라 · 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그 도력이란 게 무엇이냐?
즉 부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그러면 부처님이 방광을 안하면 그건 부처가 아니다 그것은 가짜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16 공평빌딩 6층 (우)14032
blog.naver.com/wiserain10
• 네이버 검색 의철미륵부처님 • 유튜브 불교방송 용화미륵부처님 TV
TEL. 031-444-9985

